



한국 남녀 핸드볼, 일본 차례로 격파... 3년 만의 정기전 정복

조영신 감독(상무퍼닉스)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21일 충북 청주의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5 핸드볼 국가대표 한일 정기전에서 27-25로 승리했다.

이번 한일 정기전은 지난 2022년 인천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성사됐다. 특히 올해 경기는 양국 국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자 대표팀은 오랜만에 성사된 정기전에서 일본을 격파했고, 2년 전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당시 23-34 패배를 설욕했다.

남자팀 27-25·여자팀 29-25 승리
남자부 김태관·여자부 박새영 MVP

조 감독은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일궈낸 점이 고무적”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승리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아시아 및 국제대회에서 더 강한 모습으로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자 대표팀은 내년 1월 제22회 아시아

남자선수권대회 우승을 목표로 소집 훈련을 이어간다.

이날 남자 대표팀은 전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주도권을 장악했다. 빠른 공수 전환과 강력한 수비로 일본을 몰아붙이며 일찌감치 우세를 점했다.

후반 들어 일본이 반격에 나서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남자 대표팀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리드를 지켜 27-25 승리를 거뒀다.

라이트백 김태관(충남도청)이 득점을 책임졌고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레프트윙 오황제(충남도청)는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골키퍼 이창우(한국체대)는 연이은 선방으로 일조했다.

뒤이어 이계정 감독(삼척시청)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도 일본에 29-25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지난해 아시아여자선수권 결승에서의 패배를 설욕한 의미 있는 결과로, 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급 실력을 입증하는 자리였다.

이 감독은 “헝가리 전지훈련을 통해 다져온 조직력과 체력이 오늘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고, 11월에 다가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자 대표팀은 경기 시작부터 거칠고 빠른 수비를 앞세워 일본을 차단했다.

여기에 속공과 세트 플레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전반을 리드한 채 마무리했다.

후반에도 상대 추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며 승리를 가져왔다.

라이트윙 이해원(부산시설공단), 레프트윙 서아루(광주도시공사)가 예리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공격을 이끌었다.

주장 한미슬(SK슈가글라이더즈)은 노련한 운영과 수비 조율로 베테랑다운 면모를 뽐냈다. 골키퍼 박새영(삼척시청)은 안정적인 선방을 선보여 MVP를 수상했다.

/뉴스1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행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CG (주)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062) 607-8338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 은메달 수확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2025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하영(서울시청), 최세빈(대전시청), 김정미, 서지연(이상 안산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21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일본과의 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44-45로 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8강에서 인도(45-19승),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45-42승)을 꺾었다.

대망의 결승에서 일본을 만났지만, 1점 차 석패를 당하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같은 날 박상영(울산시청), 마세건(부산시청), 안태영(국군체육부대), 손민성(화성시청)으로 꾸려진 남자 에페 대표팀은 일본과의 대회 남자 에페 단체전 준결승에서 39-44로 패배해 동메

달을 땀다.

남자 에페 대표팀은 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에서 필리핀(45-37승), 8강에서 홍콩(45-39)을 차례로

격파했다.

결승 진출 길목에서 일본과 점전을 펼쳤으나 패배하면서 동메달로 대회를 마쳤다.

/뉴스1

‘김민재 부상 결장’ 땀, 보카 꺾고 클럽월드컵 16강 조기 확정

C조 2차전서 2-1 승 올리세 결승골... 25일 벤피카와 3차전서 1위 다툼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결장한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보카 주니어스(아르헨티나)를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다.

뮌헨은 21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카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1위 뮌헨(승점 6·2승)은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고, 3위 보카(승점 1·1무 1패)는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직면했다.

뱅크 톱파니 감독이 지휘하는 뮌헨은 최정에 선발 명단으로 보카를 상대했다.

전반전 해리 케인 선제골 이후 후반전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경기 막판 마이클 올리세의 결승골에 힘입어 연승에 성공했다.

뮌헨은 오는 25일 2위 벤페카(포르투갈·승점 4·1승 1무)와의 3차전에서 1위를

다툼다.

한편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에도 함께하지 못했다.

현재 김민재는 뮌헨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는 내달 토너먼트에 돌입하고 나서야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과 재활이 늦어질 경우 이번 대회에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른 시간 뮌헨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7분 올리세의 왼발 코너킥이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경합 과정에서 세르주 그나브리 파울이 선언돼 취소됐다.

절치부심한 뮌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균형을 잡았다.

전반 18분 콘라드 라이머의 크로스가 날카롭게 향했다. 케인이 킥을 코망에 맞고 굴절된 볼을 구석으로 밀어 넣어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전에 돌입한 뮌헨은 자말 무시알라

와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를 교체 투입했다.

그러나 득점은 보카 몫이었다. 후반 21분 주장 미구엘 메렌티엘이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돌파한 뒤 슈팅으로 마무리해 동점골을 넣었다.

뮌헨은 실상가상 교체로 넣은 에이스 무시알라가 부상 당하는 변수까지 발생했다.

경기 막판 올리세가 위기에 빠진 뮌헨을 구했다.

후반 39분 보카 위험 지역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올리세가 흘러나온 볼을 왼발로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남은 시간 추가 득점은 없었고, 뮌헨은 보카에 2-1 승리를 거뒀다.

/뉴스1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